



3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전주매일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윤 2월 9일)

제32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북 농정 새로운 도약 위한 디딤돌

전북 제1기 농어업 농어촌위원회 출범

삼각농정위원회 단점 고려
더 효율적인 협치 기구 구성
위원 수 128명으로 조정
15명 이내 운영협이 실무 담당

민선8기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 추진동력 마련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농정협치기구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2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도가 기존 삼각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도 세분화돼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농정협치 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실무는 15명 이내의 운영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1기 출범식이 2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노창득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10개에서 7개로 통합·운영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해 주요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분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전라북도 삼각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제1기 출범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

영협의회 위원 15명도 선출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 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앞서 우리 전북은 이미 종자, 미생물 등 4개 분야를 선점했고, 농도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뻗어가는 비전을 선포했

다"고 전제한 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전북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지사 직 인수위원회 활동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김재훈 기자

4·5 재선거 근로자 투표참여 시간 보장

전북선관위, 오늘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재선거와 관련,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영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학생 등도 투표를 위한 시간이 보장된다고,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너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도내 기업, 효율적 환경관리 통해 지속가능 성장 도모

전북도는 29일 전주시 팔복동 소재 (주)전주페이퍼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전북기업환경협의회(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경식 협의회장(전주페이퍼 공장장) 등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전북도 주요 환경시책 설명,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인 표창 수여,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북기업환경협의회서 환경정책·관리방안 정보 교류 등 이뤄져 김관영 도지사,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혁신·지원 병행 강조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에 있어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산업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불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협의회 건의 사항인 전주알루미늄 내 산업용 철로 안전운영 방안,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완화 및 자동화, 근로

자 채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내용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 방안 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 세계 경제질서는 ESG(환경, S: 사회, G: 투명경영)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해 전북에 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5월에 출범한 전북기업환경협의회는 200여개의 전북 관내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협의체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기관과 기업, 또는 기업 상호간 환경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영세사업장 기술 지원, 자연정화 활동과 청소년 환경포스터 공모전 등 지역 환경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muju 무주군

Lohas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디복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 한 여름 평균 기온 24℃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했습니다!”

무주반디복사이버정터 www.mj1614.com

www.mj1614.com
063)322-0278 / 320-2770